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설명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21. 5. 6(목) / 총 2매</b>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유병수, 사무관 박유서, 김도형</li> <li>• ☎ (044) 201-3561, 3566, 3567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발주기관별 용역 중심제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경실련 보도자료, '21.5.6) >

◆ “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중심제 폐지하라”

- 국토부·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
- 상위 20개 업체,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.2%차지
-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

-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써,
  - 중심제 대상용역\*은 기술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상위업체의 용역 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.

\* (기본설계) 15억원 이상, (실시설계) 25억원 이상, (건설사업관리) 20억원 이상

- 평가 공정성을 위해서 평가위원을 평가 1~2일전 추첨으로 선정·공개하고, 업체 접촉시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 후 위원별 평가 결과도 공개 중이나,

- 업계는 기술력 차별화를 위해 설계·시공 등의 경험을 갖춘 퇴직 인력도 일부 고용 중이며, 퇴직자들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중에 있습니다.
- 기술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이 풍부한 고급인력을 보유한 상위 업체가 입찰에 참여 중이며,
  - 기술인력 보유현황, 입찰참여시 매물비용 등을 감안하여 1개 사업 입찰에 집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정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차등평가제에 대해서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및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차등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찰가격 등 사전 담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중심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,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유서 사무관(☎ 044-201-3566, 356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